ISSN 2093-5986
보건의료산업학회지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2011년 12월
제5권 제4호
pp.113-126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행동

김명희‡
대구과학대학 간호과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toward Elderly

Myung-Hee Kim‡
Dept. of Nursing, Taegu Science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 toward the elderly and to identify the predictors of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 toward the elderl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513 nursing students enrolled in ADN(Associate Degree in Nursing) program in Daegu by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research producted following results:

1) The average score of the participants' knowledge of the elderly was 12.3±2.7 out of 25. The average attitude score was 86±11.7 out of 140. This score was classified as a neural range. The average behavior score was 57.5±6.9 out of 68. 2) Among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participants level of knowledg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age, religion, educational level. 3) Participants' knowledge toward the elderly was difference significantly present not living conditions, the degree of preference for offering the nursing care of the elderly. 4) Participants' attitude toward the elderly were statistically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gree of the familiar interaction with the elderly, the interest in the elderly and problems of the aged. 5) Participants' behavior toward the elderly were statistically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gree of a current relationship with the elderly , the familiar interaction with the elderly. 6)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of participants'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toward the elderly were positively correlated.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gram for continuous teaching and education that will help increase student nurse's knowledge of the elderly and thereby positively change attitude and behavior toward the elderly.

Key Words : Knowledge, Attitude, Behavior, Elderly

Ⅰ. 서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급격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06년에 발표된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도달하는데 프랑스는 115년, 스웨덴 85년, 가장 빠른 일본은 25년이 소요되었으나, 한국은 18년이 걸릴 정도로 압축적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령자 통계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9년 7월 현재 전체 인구의 10.7%를 차지하여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201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3%가 되어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8%를 차지하며 초 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1]. 이와 같은 급속한 고령화는 만성퇴행성 질환이나 치매, 중풍 등을 유발시켜 장기요양보호 노인인구의 증가와 아울러 노인의 의료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는 건강 보험 재정과 가정 경제에도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요구 및 간호 서비스 요구도가 상승됨은[2] 당연한 결과이다. 박인숙 등[3]에 의하면 뇌졸중 유발 노인이 후유 증상을 동반하는 노인이 50.85%로서 일상생활에서 독립적 수행이 가능한 노인은 18.24% 뿐이었으며, 왕경희[4]에 의하면 만성질환 노인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보건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많았으며, 특히 입원 기간 동안 질병관리와 교육, 간병 방법,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많았다고 하였다.

의료현장에서 노인 및 노인 보호자를 직접 대면하고 실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간호사이므로 노인에 대한 간호사의 긍정적인 태도는 간호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5],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근무지 선택에도 영향을 미쳐 노인대상자 간호를 기피하는 현상을 낳기도 하였다[6]. 따라서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 학생이 갖는 노인에 대한 태도는 향후 노인간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간호대 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간호대 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인 경우도 있었지만[7], 대부분 연구에서 보면 중립적이어서[8][9] 이를 보다 긍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노인에 대한 지식부족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10], 노인관련 지식과 태도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9][11], 간호대 학생들에게 노인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고, 질 높은 노인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대 학생들이 노인을 전인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긍정적인 시각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12]고 생각된다.

서병숙과 김수현[13]은 일반대학생들도 노인과 관련된 수업을 많이 들을수록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이는 교육이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긍정적 이미지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더욱이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행동까지를 모두 조사한 연구가 상당히 부족함을 볼 수 있다[14].

따라서 미래의 노인간호를 담당할 간호대 학생이 간호사로 실제 현장에 근무하기 전에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여, 수준 높은 노인간호를 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노인간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은 필수적이며. 아울러 간호 학생에게 적합하고 효과적인 노인간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또한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 간호대 학생이 갖고 있는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행동을 세밀히 파악하고 그 관계를 규명하여, 간호대 학생에게 적절한 노인간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을 대

상으로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행동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으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노인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을 파악한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을 비교한다. 넷째, 연구대상자의 노인관련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을 비교한다. 다섯째, 연구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대구 소재 ADN(Associate Degree in Nursing) 과정 1개교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는 513명을 임의 추출하여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11년 6월 28일부터 7월 12일 까지 총 15일 간이며, 본 연구에 자발적 참여를 희망한 간호학생에게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이 중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513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일반적 특성 5문항, 노인관련 특성 10문항, 노인에 대한 지식 25문항, 태도 20문항, 행동 17문항으로 총 7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노인에 대한 지식

노인에 대한 지식은 Palmore[15]에 의해 처음 개발되었고, 1998년에 수정 보완된 True-False version의 Facts On Aging Quize(FAQI)를 임영신[16]이 한국노인 실정에 맞추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노인에 대한 신체·생리 영역, 심리 영역, 가족·사회 영역의 사실과 가장 일반적 편견을 포함하는 FAQI은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진술에 대해 응답자들이 그 진술이 맞는지, 틀린지, 혹은 잘 모르는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정답은 짝수 문항은 모두 참이고, 홀수 문항은 모두 거짓으로, 지식 총점은 각 문항별로 정답은 1점, 오답과 모르겠다는 0점으로 처리하여 25문항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였다. 지식 총점은 최저 0점에서 최고 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75였다.

2)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한정란[17]의 노인에 대한 태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노인에 대한 감정과 견해를 측정하기 위한 이 도구는 20개의 상반되는 형용사 쌍으로 구성된 의미 분별 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ing)로서 각 문항에 대하여 Likert 7점 척도로 나뉘어 '매우 긍정적'은 1점, '매우 부정적'은 7점으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분석과정에서 문항 6, 7, 11, 12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은 의미의 일관성을 위해 응답점수를 역코딩화 하였다. 척도의 각 항목이 7점 범위를 가지므로 3.5점에서 4.5점까지를 중립적인 태도의 범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총점에서는 70점과 90점 사이의 점수가 중립적 범위를 나타낸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최저 20점에서 최고 1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 =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84였다.

3) 노인에 대한 행동

노인에 대한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원영희[18]가 개발한 노인에 대한 행동 척도를 최경애[19]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7개 문항, 4점 척도로 응답자들 개인이 노인을 대하는 행동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응답하며, 문항의 내용이 부정적인 질문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다른 지표들과 일관성을 위해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하기 위하여 측정값을 역 코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척도의 각 항목이 4점 범위를 가지므로 2점에서 3점까지를 중립적 행동의 범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총점에서는 34점과 51점 사이의 점수가 중립적 범위를 나타낸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17점에서 6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행동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 = .8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83이었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 9.13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노인관련 특성,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사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노인관련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에 관한 차이 검증은 t-test, ANOVA를 사용하였다.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표 1>과 같다.

총 513명의 대상자 중 간호과의 특성상 여학생 비율이 88.5%로 매우 높고 남학생은 11.5%였다. 연령별 분포는 20~21세가 42.5%, 18~19세가 39.4%, 24세 이상이 9.5%, 22~23세가 8.6% 순이었고 종교는 없음이 55.3%로 가장 높았으며, 기독교 16.8%, 불교 14.2%, 천주교 12.3%, 기타 1.4% 순이었다. 성장장소는 대도시가 66.9%로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 18.9%, 농어촌 14.2% 순이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N	%
성별	남학생	59	11.5
	여학생	454	88.5
연령	18-19세	202	39.4
	20-21세	218	42.5
	22-23세	44	8.6
	24세 이상	49	9.5
종교	기독교	86	16.8
	천주교	63	12.3
	불교	73	14.2
	없음	284	55.3
	기타	7	1.4
성장장소	대도시	343	66.9
	중소도시	97	18.9
	농어촌	73	14.2
계		513	100.0

2. 연구대상자의 노인 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노인 관련 특성은 <표 2>와 같다. 조부모가 생존해 있는 대상자가 69.6%였고, 현재 노인과 동거하지 않는다가 86.0%, 과거에 노인과의 동거경험이 없다가 53.8%로 나타났다. 평소에 친분 있는 노인이 없다가 71.7%였으며, 노인간호 수강경험이 있는 경우가 55.4%, 노인간호 실습을 해본 경우가 60.8%로 나타났다. 노인자원봉사 경험이 있다가 78.9%였고, 노인간호 선호여부는 "상관없다"가 52.6%로 가장 많았다. 노인관련 문제 관심정도에서는 중간정도의 관심이 60.0%로 가장 높았고, 관심 많다 19.5%, 관심 없다 11.3%, 매우 관심 많다 5.8%, 전혀 관심 없다 3.3% 순이었다. 선호하는 간호 분야는 성인간호 분야가 38.4%로 가장 높았으며, 아동간호 분야 21.9%, 모성간호 분야 17.7%, 정신 간호 분야 12.1%, 지역사회 간호 분야 3.9%, 노인간호 분야 3.7%, 기타 2.3%순으로 나타났다.

3. 연구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연구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정도를 조사한 결과는<표 3>과 같다.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점수는 총 25점 만점에 평균 12.3, 평균 정답률 44.8%였다.

각 영역별 지식정도를 보면 신체·생리영역의 정답률은 61.74%인데 비해, 심리영역은 32.8%, 가족·사회 영역은 30.60%로 신체·생리 영역보다 낮게 나타났다. 각 문항별 정답률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인 지식문항은 "5가지 감각 모두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이며 93.2%로 가장 높았고, "체력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87.9%, "폐활량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86.2%의 순으로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반면에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가족·사회 영역에서 "적어도 5%이상의 노인이 장기체류기관에 살고 있다"로 9.7%를 보였다.

<표 2> 연구대상자의 노인 관련 특성

특징	구분	명	%
조부모 생존 여부	Yes	357	69.6
	No	156	30.4
현재 노인과의 동거여부	Yes	72	14.0
	No	441	86.0
과거 노인과의 동거 경험	Yes	237	46.2
	No	276	53.8
평소에 친분 있는 노인 여부	Yes	145	28.3
	No	368	71.7
노인간호 수강 경험	Yes	284	55.4
	NO	229	44.6
노인간호 실습 여부	Yes	312	60.8
	No	201	39.2
노인을 위한 자원 봉사경험	Yes	405	78.9
	No	108	21.1
노인간호 선호 여부	좋다	182	35.5
	싫다	47	9.2
	상관없다	270	52.6
	기타	14	2.7
노인 및 노인 관련 문제 관심 정도	매우 많다	30	5.8
	많다	100	19.5
	중간	308	60.0
	없다	58	11.3
	전혀 없다	17	3.3
선호하는 간호 분야	성인 간호 분야	197	38.4
	모성간호 분야	91	17.7
	아동간호 분야	112	21.9
	정신간호 분야	62	12.1
	노인간호 분야	19	3.7
	지역사회간호 분야	20	3.9
	기타	12	2.3
계		513	100.0

<표 3> 연구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영역	문항내용	정답률(%)	영역별 정답률(%)
신체·생리	1. 노인의 대부분은 망령(예: 기억력 손상, 지남력 장애, 치매)이 든다.	48.7	
	2. 5가지 감각 모두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93.2	
	3. 대부분의 노인은 성관계에 대한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다.	76.0	
	4. 폐활량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86.2	
	6. 체력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87.9	
	8. 노인 운전자들은 젊은 운전자들보다 1인당 사고 횟수가 더 적다.	17.9	61.74
	9. 대부분의 노인 직장인들은 젊은 직장인들보다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	44.1	
	10. 노인의 대부분이 일상생활 활동을 수행할 만큼 충분히 건강하다.	43.9	
	12. 노인들은 보통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젊은이보다 더 오래 걸린다.	75.8	
	14.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반응시간이 더 느린 경향이 있다.	77.0	
	18. 직장에서 늙은 직장인들은 젊은 직장인들 보다 사고가 적다.	28.5	
심리	5. 많은 노인들이 대부분의 시간에 비참함을 느낀다.	44.1	
	11. 노인들 대부분은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66.1	
	13. 우울은 젊은이들 보다 노인들에게서 더 많이 발생한다.	27.3	
	16. 노인들 대부분은 자신이 좀처럼 지루하지 않다고 말한다.	19.1	32.8
	23.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더 신앙심이 깊어지는 경향이 있다.	16.2	
	24. 대부분의 노인들은 좀처럼 흥분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	24.2	
가족	7. 적어도 5% 이상의 노인이 장기체류기관에 살고 있다.	9.7	
사회	15. 일반적으로 노인이 되면 모든 면에서 비슷비슷해 진다.	31.8	
	17. 대부분의 노인들은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다.	32.4	30.60
	19.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10%이상이 65세 또는 그 이상이다.	14.0	
	20.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노인들에게 낮은 우선권을 주는 경향이 있다.	36.1	
	21. 노인들 대부분은 최저생계비(정부에 의해 규정된) 이하의 수입을 가진다.	20.9	
	22. 대부분의 노인들은 일을 하고 있거나 어떤 종류의 일을 가지기를 원한다.	70.6	
	25. 2010년의 노인들의 건강과 사회경제적인 상태는 현재와 같거나 더 나빠질 것이다.	29.4	
	전체 정답률	44.8	
	총 점(평균)		25(12.3)

4. 연구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표 4>와 같다. 노인에 대한 태도점수는 총점 140점 만점으로 대상자의 평균점수는 86점으로 중립적 범위 (70점에서 90점)내에 있었고, 문항별로 보면,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중립적인 범위(3.5~4.5)를 벗어나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문항은 8개 문항으로 노인에 대해 "침착하다", "중요하다", "재주가 많다", "남을 잘 믿는다", "부지런하다", "친절하다", "너그럽다", "정직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반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문항은 총 1개 문항으로 노인은 허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4> 연구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

문항내용		평균±표준편차
1. 깨끗하다	- 지저분하다	4.0±1.0
2. 잘생겼다(보기 좋다)	- 못생겼다(보기싫다)	4.0±0.9
3. 세련되다	- 촌스럽다	3.6±1.0
4. 건강하다	- 허약하다	3.1±1.2
5. 침착하다	- 덤벙댄다.	4.8±1.3
6. 유식하다	- 무식하다	4.4±1.1
7. 똑똑하다	- 멍청하다	4.4±1.1
8. 중요하다	- 쓸모없다	4.9±1.2
9. 재주가 많다	- 잘 하는 게 없다	4.7±1.1
10. 남을 잘 믿는다	- 의심이 많다	4.6±1.3
11. 착하다	- 못됐다	4.4±1.2
12. 부지런하다	- 게으르다	5.0±1.4
13. 재미있다	- 재미없다	4.0±1.2
14. 용기가 있다	- 비겁하다	4.3±1.1
15. 불만이 없다	- 불만이 많다	3.7±1.2
16. 책임감이 있다	- 책임감이 없다.	4.5±1.2
17. 명랑하다	- 우울하다	3.8±1.1
18. 친절하다	- 불친절하다	4.6±1.2
19. 너그럽다	- 이기적이다	4.8±1.3
20. 정직하다	- 거짓말을 잘한다	4.6±1.2
전체		86±11.7

5. 연구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행동

연구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행동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행동점수는 총 68점 만점에 평균 57.5점으로 중립적인 범위 (34점에서 51점)보다 높아 긍정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별로 살펴보면 각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행동을 의미하도록 역 코딩 되었으며, 가장 긍정적 행동을 한 문항은 "노인을 비하하는 말이나 농담을 한 적이 없다"로 4점 만점에 평균 3.7점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긍정적 행동을 한 문항은 "노인이 잘 듣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행동한 적이 없다", "카페나 식당 등에 들어가면 가능한 노인이 없는 다른 장소로 옮긴 적이 없다", "노인이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행동한 적이 없다", "노인이 출, 퇴근 시간에 외출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라 생각한 적이 없다"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노인과 함께 있으면 불편하다고 느낀 적이 없다"로 평균 2.9점으로 나타났다.

6.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행동의 차이를 보면 <표 6>과 같다. 연령별 노인에 대한 태도는 18~19세 (87.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21세가 가장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노인에 대한 지식이나 행동에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종교별 노인에 대한 지식은 기독교인이 (11.7) 가장 높고, 기타종교(7.9)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5> 연구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행동

문항내용	평균±표준편차
1. 노인을 비하하는 말이나 농담을 한 적이 없다.	3.7±0.5
2. 노인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무시 한 적이 없다.	3.5±0.6
3. 노인이 하는 일이나 의견을 못미덥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3.4±0.6
4. 노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다.	3.3±0.8
5. 노인의 생각이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적이 없다.	3.0±0.7
6. 노인과 함께 있으면 불편하다고 느낀 적이 없다.	3.9±0.7
7. 노인이 아픈 경우에는 노환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적이 없다.	3.4±0.7
8. 개인적으로 노인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	3.2±0.8
9. 노인과 대화하거나 교제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3.1±0.8
10.카페나 식당 등에 들어가면 가능한 노인이 없는 다른 장소로 옮긴 적이 없다.	3.6±0.6
11.노인이 잘 듣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행동한 적이 없다.	3.6±0.6
12.노인이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행동한 적이 없다.	3.6±0.6
13.노인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잘 본다.	3.5±0.7
14.노인이 출, 퇴근시간에 외출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라 생각한 적이 없다.	3.6±0.7
15.노인이 나의 일이나 집안일에 신경 쓰는 것을 귀찮다고 느낀 적이 없다.	3.5±0.7
16.노인 앞에서 노인이 알아듣거나 이해하기 힘든 용어나 표현을 사 용한 적이 없다.	3.4±0.7
17.대중교통 이용 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기 위해 눈을 감거나 모르는 척 하지 않았다	3.3±0.7
전체	57.5±6.9

<표 6>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

특성	구분	지식			태도			행동		
		평균± 표준편차	F	p	평균± 표준편차	F	p	평균± 표준편차	F	p
연령	18-19세	10.9±3.4	1.2	.295	87.9±12.5	2.9	.034	57.7±6.8	1.1	.349
	20-21세	11.5±3.0			84.5±11.4			57.3±6.8		
	22-23세	11.1±3.3			86.0±11.4			56.6±9.0		
	24세 이상	11.5±2.8			86.0±9.0			59.0±5.7		
종교	기독교	11.7±3.2	2.9	.023	87.7±12.0	2.5	.043	57.7±7.3	0.2	.931
	천주교	10.8±3.0			83.0±11.1			57.4±7.4		
	불교	11.1±3.2			87.8±14.6			57.5±6.7		
	없음	11.3±3.1			86.0±11.0			57.5±6.7		
	기타	7.9±3.8			79.3±6.3			59.9±8.7		
성장	대도시	11.2±3.1			86.3±11.9			57.4±6.3		
장소	중소도시	11.3±3.5	0.8	.919	86.6±10.9	0.6	.530	58.0±7.5	0.2	.854
	농어촌	11.2±2.9			84.7±12.3			27.0±7.5		
총점		25점			140점			68점		

노인에 대한 태도에서는 불교인에서 (87.8)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종교에서 (79.3) 가장 낮게 나타나 통계상 유의하였다. 노인에 대한 행동에서는 종교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성장 장소별로는 지식, 태도, 행동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7. 연구대상자의 노인 관련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

연구대상자의 노인 관련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노인 관련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점수를 보면 현재 노인과의 동거여부에서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동거하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조부모 생존여부, 과거 노인과의 동거경험, 친분 있는 노인 여부, 친분 있는 노인과의 친밀도, 노인과 보내는 시간에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노인관련 특성에 따른 태도점수에서는 평소 친분 있는 노인이 있는 경우에서 없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평소 친분이 있는 노인과의 친밀도에서는 친밀하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7> 연구대상자의 노인 관련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

특 성	구분	지식			태도			행동		
		평균±표준편차	t/F	p	평균±표준편차	t/F	p	평균±표준편차	t/F	p
조부모 생존여부	유	11.2±3.0	−0.2	.869	86.0±11.9	−0.3	.767	57.5±6.7	−0.08	.935
	무	11.2±3.4			86.3±11.5			57.6±7.2		
현재 노인과의 동거여부	예	10.4±3.6	−2.3	.02	86.6±10.6	0.4	.687	58.5±7.0	1.3	.18
	아니요	11.3±3.1			86.6±12.0			57.4±6.9		
과거 노인과의 동거경험	유	11.3±3.1	0.06	.565	86.6±12.2	0.8	.397	57.6±6.9	0.06	.953
	무	11.1±3.2			85.7±11.4			57.5±6.9		
평소 친분 있는 노인여부	유	11.6±3.3	1.5	.123	90.2±13.3	4.6	.001	58.8±6.8	2.6	.08
	무	11.1±3.1			84.5±10.7			57.0±6.9		
평소친분이 있는 노인과의 친밀도	매우친밀	11.4±3.8	1.5	.220	89.6±11.5	11.7	.001	56.6±8.0	4.5	.012
	친밀	11.7±3.4			9.07±14.1			59.5±6.5		
	친밀하지않음	11.1±3.0			84.7±10.8			57.2±6.8		
평소 친분이 있는 노인과의 교류 빈도	자주 있다	10.5±3.7	5.1	.007	92.0±12.6	13.5	.001	59.2±7.2	4.7	.009
	가끔 있다	12.2±3.2			90.6±13.8			59.4±6.2		
	없다	11.1±3.1			84.7±10.9			57.1±6.9		
노인과 보내는 시간	항상 즐겁다	11.3±4.2	1.1	.323	90.4±11.2	13.6	.001	59.2±7.2	4.7	.009
	때때로 즐겁다	11.7±3.1			14.5±1.5			59.4±6.2		
	즐겁지 않다	11.1±3.1			10.7±0.5			57.1±6.9		

<표 8> 연구대상자의 노인 관련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

특 성	구분	지식			태도			행동		
		평균±표준편차	t/F	p	평균±표준편차	t/F	p	평균±표준편차	t/F	p
노인간호 수강유무	유	11.2±3.2	−0.3	.796	84.7±10.8	−3.1	.002	57.4±6.7	−0.4	.671
	무	11.3±3.2			87.9±12.6			57.7±7.1		
노인간호 실습여부	유	11.3±2.9	1.0	.325	84.4±1.8	−4.1	.001	57.3±6.8	−1.1	.293
	무	11.0±3.5			88.8±12.6			57.9±7.1		
노인자원 봉사경험	유	11.2±3.2	−0.8	.422	85.9±11.3	−0.8	.426	57.8±6.7	1.5	.124
	무	11.4±3.0			86.9±13.5			56.6±7.4		
노인간호 선호여부	좋다	11.5±3.5	1.5	.226	90.8±12.7	22.3	.001	59.7±6.7	24.3	.001
	싫다	10.7±3.1			77.7±10.1			50.8±7.5		
	상관없다	11.1±3.0			84.3±10.0			57.2±6.1		
	기타	12.2±2.2			87.2±10.4			58.5±5.5		
노인 및 노인 관련 문제 관신 정도	매우 많다	11.8±3.9	1.0	.407	98.4±15.7	18.5	.001	58.9±8.6	23.0	.001
	많다	11.6±3.5			89.0±11.6			59.7±6.9		
	중간	11.1±2.9			85.4±106			58.0±5.9		
	없다	11.1±3.2			81.7±9.5			53.9±6.0		
	전혀 없다	10.7±4.1			74.2±8.9			45.8±8.6		
선호하는 간호 분야	성인간호	11.4±3.0	3.4	.003	84.7±10.2	3.6	.002	57.2±6.5	0.87	.515
	모성간호	10.7±2.9			84.2±11.1			57.7±7.1		
	아동간호	11.2±3.1			87.0±10.8			57.8±6.8		
	정신간호	11.8±2.8			89.2±15.3			57.8±7.2		
	노인간호	12.9±2.6			94.5±12.6			59.7±5.8		
	지역사회간호	9.9±4.2			87.5±17.5			57.4±10.3		
	기타	9.0±5.5			83.7±6.1			54.3±6.8		

친분이 있는 노인과의 교류 빈도는 가끔 있다에서 가장 높았고, 노인과 보내는 시간에서 때때로 즐겁다가 가장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노인 관련 특성에 따른 행동점수는 친분이 있는 노인과의 교류빈도가 가끔 있는 경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F=4.7, p=.009), 평소 노인과의 친밀도가 친밀하다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 외 조 부모 생존여부, 현재 노인과의 동거여부, 과거 노인과의 동거 여부, 친분 있는 노인 여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8. 연구대상자의 노인 관련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

연구대상자의 노인관련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노인에 대한 지식정도에서는 선호하는 간호 분야가 노인간호인 경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F=3.4, p=.004)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통계상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노인간호 실습을 한 경우와 노인간호를 좋아하는 겨우, 노인관련 문제 관심정도가 매우 많은 경우에서 노인에 대한 지식

이 높았다. 노인에 대한 태도정도에서는 노인간호 수강을 안 한 경우 (t=-3.1, p=.002)와 노인간호 실습을 안 한 경우(t=-4.1, p=.001), 노인간호 선호여부에 따라서(F=22.3, p=.001), 노인 관련 문제 관심이 매우 많은 경우(F=3.6, p=.001), 선호하는 간호분야가 노인간호인 경우 (F=3.6, p=.002)에서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9.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 간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 간의 관계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표 9>와 같다.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행동 간의 관계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 간의 관계

영역 내용	지식	태도	행동
지식	1		
태도	0.185**	1	
행동	0.112*	0.382**	1

Ⅳ.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행동을 파악하고, 일반적인 특성과 노인관련 특성에 따라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행동의 차이를 검증하며,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미래의 노인간호를 담당할 간호학생이 노인에게 보다 효율적인 노인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노인간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노인에 대한 대상자의 지식점수는 25점 만점에서 평균 12.3±2.7점 이었고, 정답률은 44.8%로서, 이는 Palmore[15]가 분석한 대학생 집단의 평균 정답률 범위인 52~69%에 비해 낮았고,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경미 등[20]의 결과인 50.2%, 김수영, 양경미, 오현이, 김진선[21]의 결과인 50.6%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지식 정답률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신체·생리적 영역의 정답률은 61.74%인데 비하여 심리 영역은 32.8%, 가족·사회 영역은 30.60%로 신체·생리 영역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정윤[22], 이춘자[23], 임영신[1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문항별 지식 정답률을 보면, “5가지 감각 모두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로 93.2%를 나타냈으며,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가족·사회적 영역의 “적어도 5% 이상의 노인이 장기 체류기관에 살고 있다”로 9.7%였다. 이는 이은자, 강익화[14]의 연구와 양경미 등[20]의 연구, 김정윤[22]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노인에 대한 대상자의 태도점수는 총점 140점 만점으로 평균점수 86±11.7점으로 나타나 중립적 범위 내에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김정윤[22]의 80.53점, 간호학과와 사회복지 학과를 대상으로 한 김수영 등[21]의 82.08점과 같이 중립적인 범위 내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나타냈다.

문항별로 태도점수를 살펴보면 긍정적 태도를 보인 문항은 총 8개 문항으로 노인에 대해 “침착하고, 중요하며, 재주가 많고, 남을 잘 믿으며, 부지런하고, 친절하고, 너그럽고, 정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문항은 총 1개 문항으로 노인은 “허약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최경애[19]의 연구결과인 노인은 “허약하고, 불만이 많다”로 나타난 것과 유사하게 전체적으로 긍정적 문항수가 많은 중립적 태도를 보였다.

노인에 대한 행동점수는 총 68점 만점에 평균 57.5±6.9점으로 긍정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정윤[22]의 56.4점과 최경애[19]의 56.3점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의 차이를 종교에서 보면 기독교 신자가 노인에 대한 지식이 높게 나타났고, 불교신자가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높게 나타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염미자[24]의 종교를 가진 경우에서 더 긍정적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대상자의 노인 관련 특성에 따른 지식과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현재 노인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서 동거하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HawKins[25]의 연구와는 상반되었다. 가장 선호하는 간호 분야가 노인간호인 경우에서 지식점수가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최경애[1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노인 관련 특성에 따른 태도에서는 평소 친분 있는 노인이 있는 경우와 친분 있는 노인과 친밀한 경우와 평소 친분 있는 노인과의 교류 빈도가 자주 있는 경우, 노인과 보내는 시간이 때때로 즐겁다 에서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한정란[1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노인간호 수업과 노인간호 실습, 노인 자원 봉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서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은 최경애[19]연구와는 유사하였으나 양경미 등[20], 김수영 등[21], 김정윤[22]의 연구 결과와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노인간호를 좋아하는 경우와 노인 관련 문제 관심이 매우 많은 경우와 선호하는 간호 분야가 교과목 중에 노인간호인 경우가 노인에 태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경애[19]의 연구와도 유사하였다.

노인에 대한 행동 상태를 살펴본 결과 친분이 있는 노인과의 교류 빈도가 가끔 있는 경우와 평소 노인과 친밀한 경우, 노인과 보내는 시간이 때때로 즐겁고, 평소 친분 있는 노인이 있고 또 친분이 있는 노인과 친밀하게 지내는 경우, 노인간호를 선호하고 노인 관련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경우에서 행동 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간호 학생들이 노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염미자[24], 김정윤[22], 최경애[1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반면에 졸업 후 근무지 선택 분야를 묻는 질문에서의 2.7%만이 노인간호 분야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경미 등[20]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었다.

노인에 대한 간호 학생들의 지식 및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서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며, 긍정적인 태도가 긍정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5], 노인에 대한 지식과 행동 간에는 긍정적인 노인관이 노인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19]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양경미 등[20]의 연구와는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지식과 태도(r=.185, p=.0001), 지식과 행동(r=.112, p=.011)간에는 약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서 볼때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전공 및 다양한 연령층으로 연구대상자를 확대 선정하여 연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행동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시도 되었다.

연구대상은 D광역시 소재 T대학 간호학생 중 연구 참여를 동의한 513명을 구조화된 설문지로 조사하였고, 자료 수집기간은 2011년 6월 28일 부터 7월 12일 까지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점수는 총점 25점 만점에 평균 12.3±2.7점 이었고, 정답률은 44.8%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2.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점수는 총점 140 만점에서 평균 86±11.7점으로 중립적인 범위내에 있었다.

3. 연구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행동점수는 총점 68점 만점에 평균 57.5±6.9점으로 긍정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 비교에서는 노인에 대한 태도가 연령은 18~19세에서(87.9±12.5), 종교는 불교인에서 (87.8±14.6) 가장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5. 대상자의 노인 관련 특성에 따른 지식, 태도, 행동 비교에서는 노인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 (t=-2.3, p=.02)와, 선호하는 간호 분야가 노인간호인 경우(F=3.4, p=.004)에서 노인에 대한 지식이 높게 나타났고 노인에 대한 태도는 평소 친분 있는 노인이 있는 경우에서(t=4.6 p=.001) 노인과 친밀하다에서(F=11.7, p=.001), 노인과 교류빈도가 가끔 있다(F=13.6, p=.001)에서 노인 관련 문제에 관심이 매우 많은 경우(F=3.6, p=.00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노인에 대한 행동의 차이는 친분노인과 교류 빈도가 가끔 있는 경우 (F=4.7, p=.009)와 노인과 친밀하다에서(F=4.5, p=.012)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6.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태도가 노인에 대한 긍정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향후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을 높이고,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형성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습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일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로서,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제공한 교육내용 및 방법이 서로 다른, 다양한 집단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2. 노인간호 교육 및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교육 및 프로그램을 제공한 집단과 제공하지 않은 집단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3. 노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효과검증을 위해 노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 전·후의 변화를 비교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1. http://kosis.kr
2. Gomcalves, D. C.(2009), From loving grandma to working with older adults: promoting positive attitudes toward aging, Educational gerontology, Vol.35(3);202-225.
3. 박인숙, 김도연, 강창렬(2011), 뇌졸중 노인의 기능장애 정도, 일상생활 수행능력, 우울과 삶의 질 간의 관계, 보건의료산업학회지, Vol.5(3);178-180.
4. 왕경희(2008), 만성질환노인 및 가족의 사회복지적 욕구에 대한 연구, 보건의료산업학회지, Vol.2(1); 56-68.
5. Courtney, M., Tong, S., & Walsh, A. (2000),

Acute-care nurses' attitudes towards older patients : A literature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Vol.6;62-69.
6. McKinlay, A. & Cowan, S. (2003), Student nurses' attitudes towards working with older patien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43(3);298-309.
7. 유문숙, 박진희, 김용순(2007),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와 태도 비교, 가정간호학회지, Vol.14(2);83-90.
8. 백성희(2007),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긍정적 태도 변화를 위한 노인유사체험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Vol.13(1);5-12.
9. 주선옥(2008),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비교,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12-17.
10. 한정란(2000),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Vol.20(3);115-127.
11. 박경란, 이영숙(2001), 청소년과 중년이 갖고 있는 노인의 고정관념 비교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Vol.19(6);221-239.
12. Robinson, S. B. & Rosher, R. B.(2001), Effect of the "half-full aging simulation experience" on medical students' attitudes. Gerontology & Geriatrics Education, Vol.21(3);3-12.
13. 서병숙, 김수현(1999),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 연구, 한국노년학, Vol.19(2);97-111.
14. 이은자, 강익화(2006), 간호학생의 노인관련 지식 및 태도조사, Vol.20(2);183-194.
15. Palmore, E. B. (1998), The Facts on Aging Quize(2nd Ed),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pp.315-320.
16. 임영신(2002), 한 종합병원 간호사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4-19.
17. 한정란(2004), 연령 집단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연구, 한국노년학, Vol.24(3);197-210.
18. 원영희(2004), 노인에 대한 행동 척도 개발, 미간행.
19. 최경애(2006), 간호학생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28-52
20. 양경미, 오현이, 김진선, 백영주(2002), 간호학과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조선대학교 의대논문집, Vol.27(1);149-152
21. 김수영, 양경미, 오현이, 김진선(2002), 간호학과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중앙의학, Vol.34(2);179-184.
22. 김정윤(2004), 간호사들의 노인관련 지식과 태도와 행동,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23-29.
23. 이춘자(2003),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일반 종합병원과 노인 전문병원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31-35.
24. 염미자(2007),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조사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31-56.
25. Hawkins, M. J. (1996).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elderly person. Educational Gerontology, Vol.22(3);271-280.

접수일자 2011년 11월 10일
심사일자 2011년 12월 8일
게재확정일자 2011년 12월 15일